이라크, 러시아 석유회사와 유정굴착계약 체결

러시아의 석유회사 Tatneft와 Zaroubejneft는 유엔의 '식량을 위한 석유 프로그램' 하에서 이라크 정부와 각각 유정 굴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Tatneft는 바그다드 남부 550㎞의 바스라(Basra) 지역에서 15개의 유정을 굴착할 것인데, 이미 유정 45개의 굴착권을 가지고 있는 Tatneft는 추가로 33개의 굴착에 대해서도 유엔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러시아 국영 Zaroubejneft는 바그다드 북부 250㎞ 거리에 있는 키르쿠크(Kirkuk)에 45개의 유정을 굴착할 예정이다.

러시아의 프라우다에 의하면 1996년부터 2001년 말까지 러시아 기업들은 40억 달러에 이르는 계약을 이라크와 체결하였고 그중 14억 달러가 2001년 중반 이후에 이루어졌다. 또한 이라크는 러시아와 400억 달러에 달하는 5개년 경제협력협정의 체결을 추진하여 왔다. 이 경제협력은 석유, 가스, 전력, 화학제품, 철도, 수송, 통신 등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러시아 정부는 확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전통적으로 군수품의 공급국이었고 주요 교역상대국인 러시아에 대해 이라크 정부는 80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를 지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압력에 대항하여 측면 지원을 받기 위하여 계약에 있어서 러시아 기업들을 우대해왔다.

다만 러시아 최대의 석유회사인 Lukoil도 사업비 40억 달러에 매장량 150억 배럴의 West Qurna 유전 개발을 1997년 조광권을 딴 이래 아직까지 개시하지 못했으며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능성 때문에도 사업 추진이 중단 상태에 있다.

특히 미국이 이라크 정권 교체를 기정 사실화하고 미국의 행동에 협조하지 않은 국가의 이라크와의 기존 계약을 신정권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이라크와 석유 관련 계약을 맺은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기업들도 실제 계약 이행에 들어가지는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나 프랑스의 관련자들은 런던이나 뉴욕에서 이라크의 반체제그룹 지도자들과 만나 사담 후세인 이후의 이라크에서의 자국 이익 보장을 사전에 약속받으려고 하고 있으나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확실시되고 있는 지금,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 있다.

선임연구원 강준수(☎3779-6645)
E-mail: jkang@koreaexim.go.kr